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믿음 쌓아가 재도약 위해 제2공장 설립 준비



최 성 식

대림수출포장 대표

수출포장은 해외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선적 업무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제시하며, 잘못된 포장으로 인한 물품의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여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최적의 포장설계 기술과 정확한 납기일, 안전한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포장은 어느 한순간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수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수출포장은 적절한 재료 및 용기로서 물품을 포장하는 기술적 작업이므로 각 업체간의 차별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림수출포장(대표 최성식)은 1978년 설립 이래 수출포장 전문업체로서 기술, 품질, 가격의 혁신으로 철저한



▲ 대림수출포장의 목재포장



▲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대림수출포장

자재 선별, 최상의 원·부자재 사용으로 소형포장에서부터 중·대형포장 및 물류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대림수출포장은 최성식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16여명이 수출산업기계, 반도체 장비 및 전자·전기제품, 해외 이전설비 및 전사용 등의 목재포장, 군납 및 관공서 납품 포장, SAMPLE부터 PALNT 설비포장, 진공, 방청, 완충 특수포장 열처리 CERTI 발급 및 방역포장, 무

방역 인조 목재포장, 무방역 철재포장, 각종 산업기계 및 수출 제품 목재 포장 뿐 아니라 통괄물류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림수출포장은 목재포장을 중심으로 초창기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했던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28여년동안 자체적인 최적의 포장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포장기법을 개발해 나갔다.

목재포장의 경우 국제적 검역실시나 열처리 및 MB훈증 절차가 까다로와 항상 각국의

검역요건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목재포장재를 식물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 MB훈증 또는 열처리 등의 소독처리를 요구해 왔다.

또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목재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

DAELIM

지자, 해당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포장재에 대해 검역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FAO 산하의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인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목재포장재의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00년 6월과 2001년 2월, 2차례에 걸친 목재포장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목재포장재의 검역적

규제를 위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목재포장을 열처리 할 경우 상대국의 목재 포장재 수입검역요건을 확인한 후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를 실시하여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고 수출업체 공급 소독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를 발행한다. 이때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바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위생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열처리 시설자에게서 발급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식물검역소에 인터넷상으로 수출신청을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검역소에 제출, 수출식물검사를 신청한다. 이때 수출 합격증을 발급받으면 비로소 물품을 수출할 수 있다.

목재포장 전문 업체답게 대림수출포장은 발빠르게 지난 2002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열처리 시설 인증업체로 선정됐으며 이로 인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앞서 20년전인 86년에는 CNC 목재 자동절단기를 도입하여 품질 혁신을 이룩하기도 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최성식 사장은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대림수출포장의 경영자 및 기술자로서 포장설계에서 생산, 영업까지 직접 발로 뛰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 모든 기기에 대한



◀ 대림수출포장의 열처리 시설



◀ 대림수출포장의 적재 과정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요구는 직접 개발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항상 고객이 원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신념아래 포장공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이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최 사장의 이러한 노력으로 2백50여개의 고객사들은 대림수출포장에 대해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와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대림수출포장은 매년 매출이 15%씩 향상되는 등 국내 수출포장업체들 중 5 순위안에 꼽히는 관록(貫祿)

있는 업체이다.

수출포장산업에서 최고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대림수출포장은 천안에 제2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눈팔지 않고 끝까지 회사를 발전시켜 이끌어갈 것”이라는 최 사장은 고객과의 신뢰와 신용, 믿음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것을 덜어 남에게 베풀다 보면 남으로부터 더해지기도 한다. 또 스스로 세상을 위하여 자기 것을 덜다 보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더해주는 이치가 있다.

최 사장은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좋은일로 돌아온다”며 “항상 이런 생각으로 고객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 믿음을 얻고자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 ‘YES’ 라고 대답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대림수출포장. 최상의 친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만족을 꾀하고 있는 대림수출포장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ko

이한열 기자